

“인기 스포츠 프로야구 프로모션 효과 크다”

유통업체는 지금 ‘야구장앓이’

브랜드 노출 홍보효과로 인지도 상승
애경, 야구팬 참여 나눔프로젝트 개최
K쇼핑, kt 프로야구단과 제휴 이벤트
아모레, 잠실구장에 메타그린존 운영



“야구장을 활용하라.”
유통업체에 떨어진 특별 미션이다. 프로야구 시즌이 한창인 가운데, 야구장에서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펼치는 게 주요 골자다.

애경이 대표적으로, 최근 잠실구장에서 열린 ‘제6회 바보의나눔 베이스볼데이’에 참여해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와 가족을 지원하는 ‘2080 기적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관중이 야구장에 배포된 ‘2080 K 진지발리스치약’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면 인증샷 1건당 2만원 상당의 ‘2080 기적나눔박스’를 중증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와 가족에게 전달하는 게 핵심. 회사 측은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관중의 직접참여로



프로야구를 겨냥한 유통업체들의 ‘야구장 마케팅’이 한창이다. 프로야구가 인기 스포츠인 만큼 프로모션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잠실구장에서 열린 애경 ‘2080 기적 나눔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진행되는 아름다운 기부행사’라며 “투병생활에 지친 환아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기획했다”고 했다.

K쇼핑을 운영하는 KTH는 kt위즈와 맞손을 잡고 다양한 제휴 활동을 펼친다. 그 첫걸음으로 21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K쇼핑 브랜드 캐릭터를 테마로 한 ‘월 앤업 데이’를 개최하고 야구팬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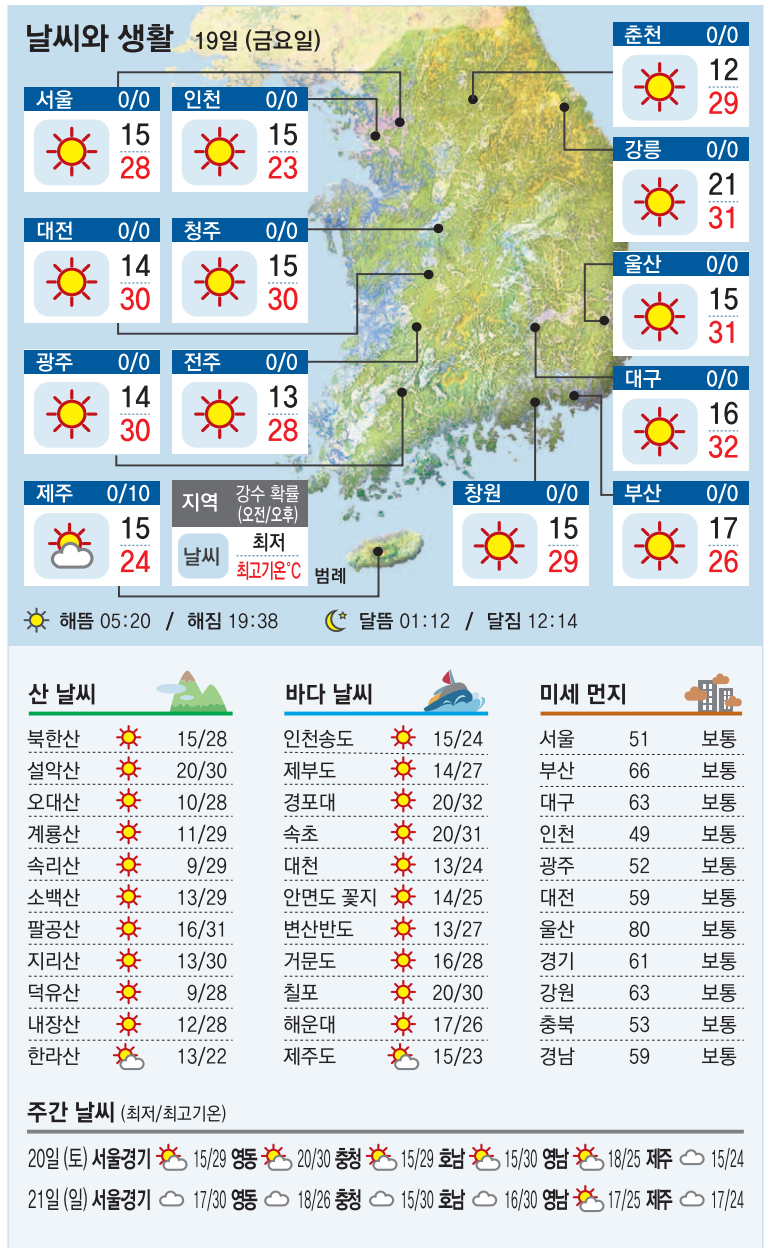
수 있는 이벤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아모레퍼시픽 ‘바이탈뷰티’는 올 시즌 두산베어스 홈경기가 열리는 잠실구장 1루 111블럭 테이블석을 ‘메타그린존’으로 운영, 전광판 영상 광고와 함께 해당 좌석 입장 관중에게 브랜드 로고가 담긴 응원봉을 증정한다.

이처럼 유통업체들이 야구장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은 프로야구가 인기 스포츠인 만큼 프로모션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프로야구 관중은 지난해 800만명을 돌파했고 올해는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대중들이 몰리는 곳에서 프로모션을 펼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또 각 스포츠 채널이 프로야구 경기를 생중계하고, 또 경기 후에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여주는 등 이래저래 노출 효과가 큰 장점도 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프로야구가 남녀노소 경계없는 국민스포츠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프로야구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이용해 브랜드 인지도 상승을 노리는 복안이 깔려 있다”며 “야구팬에게 직·간접적으로 브랜드를 노출할 수 있어 홍보효과가 크다”고 했다.

정정국 기자 jjay@donga.com



일본 하네다 공항에 ‘한국관광 홍보관’ 개관

한국방문위원회(위원장 박삼구)는 하네다 공항 국제선 4층 이벤트홀에 ‘한국관광 홍보관’을 마련하고, 18일 개관식을 진행했다. 개관식에는 박삼구 한국방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여행구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사무총장, 양우승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 주일한국대사, 일본관광청 차장, 일본정부관광국 이사장, 일본여행업협회 이사장 등 한일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관광 홍보관’은 7월17일까지 운영하며 평창동계 올림픽과 ‘2016~2018 한국 방문의 해’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전시하고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제공 | 한국방문위원회

NH농협은행, 7년 연속 우수콜센터

NH농협은행이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17년 한국산업 서비스품질지수(KSQI)’ 콜센터 부문 평가조사에서 7년 연속 우수콜센터로 선정됐다.

농협은행 콜센터인 고객행복센터는 정확·신속·친절한 상담을 위해 상담지식관리시스템 ‘아르미’를 상담사 전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상담품질 향상을 위해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상담 리더 인증제’와 ‘우수상담사 명예의 전당’ 제도를 도입해 부행장 주관으로 협의회를 열어 고객의 소리를 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상담사 처우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와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요가·탁구·배드민턴 등 동호회를 운영중이며, 건물 옥상에 ‘하늘마루(루터)’와 ‘농소정(정자)’을 마련한 게 그 예다.

회사 측은 “항후 영업점과 협업을 강화하고 상담내용을 데이터화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고객행복센터로 변화할 것”이라고 했다.

정정국 기자



인사

피플
보도국장 최원석 △뉴스제작1부장 김명진 △정치부장 김승필 △정책사회부장 박병일 △시민사회부장 표언구 △문화과학부장 박진원 △기획취재부장 양만희 △사장 직속 △비서팀장 민성기
경희대 △경희미래위원회 사무국 사무총장 김중섭

■ 부고

◇하덕민 씨 별세·인호 프로축구 아산 무궁화 선수 부친상=18일 오전 창원 경상대 장례식장 일반 3호실, 발인 20일 오전 7시 055-214-1900
◇홍성운(전 서울가정법원장) 씨 별세·상기 안양대 교수 중기 삼성SDS 부장 완기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 부친상·유언장 서울대 교수 시부상=18일 오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20일 오전 02-3010-2000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경제 분야의 인사, 부고, 동정 소식을 이메일(jjay@donga.com)로 보내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뉴스디자이너 | 신하늬기자

AI의 진화, 음성인식에 시각정보를 더하다

‘구글렌즈’ 카메라 비추면 정보 제공
삼성·아마존 등 ‘보는 AI’ 잇단 출시



구글 렌즈

“길을 걷다 식당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자 메뉴 등 관련 정보가 나타난다.”
“신발을 비추면 쇼핑 정보가 보여진다.”
눈 달린 인공지능(AI)이 뜬다.

‘음성인식’ 기반 AI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카메라를 활용한 시각정보를 바탕으로 한 AI 서비스도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구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개발자회의에서 ‘구글렌즈’를 공개했다. 구글렌즈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서비스다. 사물이나 상점 등을 비추면 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식이다. 또 스마트폰으로 라우터를 비추면 비밀번호를 인식하고 와이파이에서 자동으로 로그인 해주는 등 작업단계를 줄여주기도 한다.

구글은 구글렌즈 기능을 우선 ‘구글 어시스턴트’와 ‘구글 포토’에 도입할 예정이며, 향후 다른

서비스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는 기조연설에서 “답러닝 발전 덕에 이제 카메라는 ‘볼 수’ 있으며, 휴대폰에 말을 걸고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뿐 아니다. ‘보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능과 서비스가 잇따라 선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8’에 ‘빅스비비전’ 기능을 도입했다. 카메라로 사물을 촬영하면 쇼핑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아마존의 경우 최근 카메라가 달린 AI 기기 ‘에코 룩’을 출시하기도 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강주현의 퍼즐월드

			9	8		2	
2		8			5	6	
	4	9				8	1
	2			9			6
6			2		7		5
8				4			7
	5	2				4	6
		7	4			1	8
	8			5	9		

			4	6	8		
	7	8				5	4
	4			3			9
9				5			4
5		4	6		1	7	3
6				7			2
	1			8			7
	6	3				8	2
			7	1	3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토쿠정답 (모바일) WWW.경품광고퀴즈.kr (모바일) WWW.매직스토쿠.kr

2	8	4	6	9	1	8	7	9	9	7	8	1	2	6	8		
8	9	1	8	2	7	4	9	6	1	2	8	9	7	6	8	9	4
6	9	7	8	1	2	5	8	6	1	8	9	8	2	5	1	7	
1	2	9	7	5	8	6	8	2	9	6	7	4	5	1	8	9	
9	8	6	1	8	2	7	1	9	8	9	4	1	6	9	7	2	9
9	7	8	1	6	8	9	2	4	7	1	9	2	9	8	1	4	6
8	1	8	2	9	1	6	7	5	8	6	1	2	8	9	9	7	2
7	6	9	9	1	8	8	2	4	9	7	9	6	2	1	8	2	8
4	2	9	7	8	6	9	8	1	4	2	8	9	7	6	9	5	1

8	9	2	7	1	3	4	6	5
8	6	5	2	8	4	5	8	2
4	1	5	2	6	8	7	9	
6	8	1	3	7	4	9	5	2
5	2	4	9	6	8	1	7	8
9	3	7	9	8	2	6	1	4
2	4	6	5	3	7	1	9	8
3	8	1	2	9	5	4	6	
5	9	4	6	8	2	3	7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19일(금요일) 음력:4월 24일

	쥐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해·번개, 갑동, 운세: 만사가 행통하는 운이나 큰일은 할 수가 없다. 다소 소극적이라고 할 만큼 저자세로 일에 임하면 크게 갑할 것이다. 대인관계 등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다. 길방:서
	소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싸늘, 소심한 날. 운세: 땅 속의 씨가 싹이 터서 따뜻한 태양의 열로 잘 자라 이득과 큰 무가 되는 것처럼 모든 운세가 나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건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나아가라. 길방: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쾌청, 상쾌, 운세: 계획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된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투자자와의 거래처사가 있는 날이다. 길방:남
	토끼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구름, 자유 추구, 운세: 성실함이 있어야 크게 갑다. 허물이 없고 마음을 바르고 골게 가져야 한다. 아무 이득도 없는 일을, 주위의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관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길방:북
	용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여유비, 겨우 만족, 운세: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다면 처음은 우여곡절이 있겠으나 나중에는 많은 사람의 협력을 얻어 대사업을 완성시킨다.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된다. 길방:남
	뱀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먹구름, 가시밭길, 운세: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시기를 넘겨야 한다. 친구나 주변인의 유혹으로 습수 가무에 빠지기 쉬운 날이다. 길방:동
	말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파도, 힘이 넘친다. 운세: 무슨 일이나 자신감이 충만하여 실수하기 좋은 날이다. 신중한 자세만이 앞날을 밝게 할 것이다. 지나치게 권위적이며 자신위주가 되어 아내가 힘들어한다. 길방:동
	양 행운색: 적색	오늘의 마음:쾌청, 힘찬 하루, 운세: 상사나 주변인의 도움으로 유리한 거래가 성립되며 수입이 증대된다. 직장인은 승진의 운이며, 미혼자는 남녀 불분하고 결혼하려는 마음이 생긴다. 길방: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여명, 일출 직전, 운세: 감정 제어가 잘 되지 않는 날이다. 매사 일회일비 하다보면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진행 중인 일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침착한 자세로 머리를 싸라. 길방:북
	닭 행운색: 검정	오늘의 마음:신기루, 공상 많다. 운세: 오늘은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욕하고 일어나는 기운의 날이다. 괜히 성질부리다 자신만 상처 입는 날이다. 길방:북
	개 행운색: 흰색	오늘의 마음:노을, 허무한 마음, 운세: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함부로 나아가지 말고 자기 몸을 돌아보고 인덕을 연마하며 위험한 때가 지나길 기다려야 한다. 길방:서
	돼지 행운색: 청색	오늘의 마음:맑음, 평화롭다. 운세: 물집이나 금전적으로 충분치 못한데도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검소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길방:동
	재운코너	금주의 로도 행운번호: 1,3,6,8,(2,4) 금일복권, 주식, 부동산매입 행운의 띠: 토끼,양,돼지 금일 주식, 부동산 매도 행운의 띠: 쥐,용,원숭이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영연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이성춘	02 2020 1032
편집인	연재호	02 2020 1041
편집국장	이승국	02 2020 1059
인쇄	동아일보사	02 2020 1040
www.sportsdonga.com		02 2020 1065
09(03)18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